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김정란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경신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
Doctoral course : Kim, Jung Nan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
Associate Prof. : Kim, Kyeong Shin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to examine the difference among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and relational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influencing coping behavior.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

First, 99.1%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violence at least once. The score of violence offense and violence victimization was lower than median. But male students' sexual viol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s'.

Second, total score of coping behavior was lower than median. The score of female students positive copin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s, and that of male students' avoidance copin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s.

Third, the violence style varied with sex, attitude toward violence, anti-communication, and conflict. etc.

Fourth, the positive coping behavior varied with victim response and victimization of physical violence. etc. The avoidance coping behavior varied with sex, age, grade, sex-role attitude, and partner's sexual violence. etc.

Fifth, the positive cop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sex, partner's psychological violence, conflict, anti-communication. etc. The avoidance cop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sex and gr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이성교제의 경험을 통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타인과의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자기 성찰과 발달을 하게 된다. 더욱이 이성교제는 오락, 만남, 즐거움, 그리고 배우자 선택을 포함하는 명시적인(manifest) 기능과 사회화, 사회적 지위, 성적 경험, 그리고 친밀감과 자아욕구 충족을 포함하고 있는 잠재적인(latent) 기능을 갖고 있다(Benokraitis, 1996).

그러나 이성교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역시 지니고 있는데, 이성교제 중 폭력(dating violence)이 그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이성교제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이성교제 중 폭력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성교제 중 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Stets와 Henderson(1991)은 조사 대상자의 30%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약 90% 정도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1/3 정도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rias, Samios, & O'Leary, 1987; Sugarman & Hotaling, 1989).

그런데 이성교제 중 폭력은 높은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아내 구타와 아동 학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는데, 1981년 Makepeace의 연구를 계기로 아내 구타로부터 분리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여, 이 후 이성교제 중 폭력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Sugarman & Hotaling, 1989).

초기의 이성교제 중 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이성교제 중 폭력과 개인적 특성, 즉 연령, 성별, 가정폭력에의 노출, 스트레스,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가부장적 성규범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Bernard & Bernard, 1983; Emery, 1982; Makepeace, 1983),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성교제 중 폭력에 대한 연구는 이성교제 내에서의 상호작용적 특성과 관계의 구조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즉, 이

성교제 중 폭력과 커플들간의 친밀감, 의사소통, 통제, 갈등 대처유형, 협상 스타일, 권력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인데(Lloyd & Emery, 1994; Stets & Henderson, 1991; Stets, 1992),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이성교제 중 폭력과 상호작용의 질 사이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성교제 중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표출행동에 관한 김예정의 연구(1993), 신체적 폭력 실태에 관한 김용미의 연구(1996), 언어적·신체적 폭력 양상에 관한 이영숙의 연구(1998)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의 발생 비율과 폭력 후 관계 변화 등 단순한 실태 파악이 주종을 이루어 이성교제 중 폭력과 다른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성교제 중 폭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김예정, 1993; 이영숙, 1998; Carey & Mongeau, 1996; Stets & Henderson, 1991) 대처행동을 이성교제 내의 커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해결 전략으로 간주하여 폭력을 대처행동 중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성교제 중 폭력의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이성교제 중 폭력경험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예정, 1993; 김용미, 1996; Sugarman & Hotaling, 1989), 이는 폭력에 대한 긍정적 피이드백으로 인해 관계내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서 폭력이 안정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더불어서 이성교제 중 폭력은 장기적으로 부부 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폭력자체에 대해서도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Roscoe & Benaske, 1985), 이성교제 중 폭력이 개인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폭력의 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교제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첫째,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둘째, 개인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에 따라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관련 변인들이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이성교제 중 폭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여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개인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에 따라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이성교제 중 폭력

1) 이성교제 중 폭력의 개념

‘이성교제 중 폭력(dating violence)’이란 “남녀가 일상적인 교제에서부터 약혼이나 동거에 이르기까지 이성간의 교제활동 전 영역을 걸쳐 두 사람간의 합의가 없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성적 위해(harm)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체적·비신체적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폭력 유형은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violence),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성적 폭력(sexual violence)으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심리적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손상시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야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는 신체적 힘(force)이나 도구(restraint)의 사용을 의미하며(Sugarman & Hotaling, 1989), ‘성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이성교제 중 성별에 따른 폭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도 남성만큼 신체적·언어적으로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Stets, 1992; Sugarman & Hotaling, 1989). Makepeace(1986)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당하지만, 폭력행동의 발생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더 심한 성적 폭력과 신체적·정서적 해를 보고하였다. 나이는 신체적 폭력의 강력한 예측 변인인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tets & Henderson, 1991;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자아존중감과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중 폭력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지만(Deal & Wampler, 1986; Sugarman & Hotaling, 1989), 다른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중 폭력의 결정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Bird, Stith, & Schladale, 1991; Makepeace, 1981).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Bernard, Bernard와 Bernard(1985)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그들의 상대방에게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사람이 폭력행동을 갈등, 스트레스 혹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수용하여 이성교제 관계에서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Stets & Pirog-Good, 1987), 김예정(1993)의 연구에서도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과 이성교제 중 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가정폭력 경험은 이성교제 중 폭력의 예측 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는데, 김예정(1993)은 청소년기에 부모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영숙(1998)은 이성교제 관계에서의 폭력행동과 관련된 변인 중에는 부모의 부부폭력과 관련된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면, Knutson과 Mehm(1988)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중 폭력과 가정폭력과의 관계가 그다지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이성교제 중 폭력은 관계적 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관계의 몰입과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 진지하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Stets는(1992) 관계의 몰입과 경미한 폭력과의 관계는 정적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파트너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민감한 사안이 도출되어 상대방에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폭력증가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ate et al., 1982). 그리고 일부 연구(Cate et al., 1982; Roscoe & Benaske, 1985)에서는 개인들이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통제와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Stets와 Pirog-Good(1990), 그리고 Stets(1992)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호 통제와 이성교제 중 폭력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실패하였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폭력이 그들을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학습하였을 경우에 최초의 반응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폭력행동은 부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Bird 등(199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커플들 사이에서 폭력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Straus, Gelles와 Steinmentz(1980)는 갈등이 언어적 폭력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Stets(1992)의 연구에서 이성교제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Christopher 등(1998)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내에서의 갈등과 성적 폭력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성교제 중 폭력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Henton, Cate, Koval, Lloyd, 그리고 Christopher(1983)는 이성교제 관계 내에서는 신체적 폭력의 원인을 폭력적인 파트너보다 오히려 상황 또는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폭력을 경시하도록 하며,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폭력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하여 간과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용서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미(1996)의 연구에서도 폭력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사랑과 애정의 표현, 혼란, 슬픔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하였고, 가해자들 역시 자신의 폭력행동이 상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자신이 혼란스럽고 화가 난 상태였다고 하였다.

2. 이성교제 중 폭력의 대처행동

이성교제 중 폭력 대처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일부 연구들을 살펴보면, Stets와 Pirog-Good(1987)는 이성교제 중 폭력을 당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지적하였으며, Carey와 Mongeau(1996)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대처행동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ichell과 Hodson(1983)은 심각한 폭력 상황에서 여성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회피지향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영숙(1998)은 신체적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으로써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폭력 대처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Johnson(1992)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성이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으나, Herbert, Silver, 그리고 Ellard(1991)의 연구에서는 폭력 대처행동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기에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으며(김광일·문경서, 1994; Walker, 1979),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고, 폭력이 지속적일수록 더욱 무기력해져 폭력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광일·문경서, 1994; Stube & Barbour, 1983).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Herbert 등(1991)의 연구에서 폭력적인 관계를 종결하지 않은 여성들은 그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인지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aumeister(1989)는 폭력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궁극적으로 자기파괴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송말희(1990)의 연구에서 갈등이 많은 집단이 부정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갈등이 적은 집단이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는 폭력 피해에 대한 인지와 관련이 있는데, 일부 연구(Carlson, 1997; Herbert, Silver, & Ellard, 1991)에서 폭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방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에 있어서는 신체적 폭력보다 심리적 폭력피해의 경우에 더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erbert, Silver, & Ellard, 1991), 성적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은 알콜과 약물 사용을 포함하는 회피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iere & Runtz, 1987).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신체적 폭력행동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외부의 지원을 찾는 등의 적극적 대처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여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등 침묵·회피, 사과·문제 논의 등의 수동적 대처행동과 합의적 대처행동을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정, 1993; 김용미, 1996).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은 전체 424명 중 199명으로 46.9%를, 여학생은 225명으로 53.1%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남학생의 경우 23-25세 사이가 38.2%, 여학생의 경우 20-22세 사이가 62.2%

로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은 군복무 유경험자가 47.0%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전체 남학생의 55.3%, 여학생의 52.9%를 차지하였다. 평균 교제기간은 남·여 학생 모두 3개월 미만, 2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데이트 횟수는 주 2-3회, 거의 매일, 주 1회, 월 2회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데이트 시간은 3시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변인, 관계적 변인,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척도화된 변인(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 경험, 이성교제 중 폭력 인지, 친밀감, 의사소통, 통제, 갈등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하였다¹⁾.

1) 개인적 변인

김광자와 김광일(1984), 김동일(1990), 윤소영(1989), Rosenberg(196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남학생의 경우는 군복무 경험),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 인지,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부모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분류)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관계적 변인

김경신·김오남·윤상희(1997), 송말희(1990), Bienvenu(1970), Sternberg(1986), Stets (1992)의 연구

1) 낮은(근대적, 비허용적, 적은, 긍정적, 약한) 집단 < M-SD
M-SD ≤ 중간 집단 ≥ M+SD
높은(전통적, 허용적, 많은, 부정적, 심한) 집단 > M+SD

를 참고로 하여 조사 대상자의 이성교제 동기, 관계 몰입(교제 기간, 평균 데이트 횟수, 1회 평균 데이트 시간), 이성교제 중 폭력인지(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 동기와 피해시 정서적 반응으로 분류), 친밀감, 통제, 의사소통(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 갈등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이성교제 중 폭력행동

이성교제 중 폭력행동의 척도는 Straus, Hamby, Boney-McCoy, 그리고 Sugarman(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자신의 심리적 폭력행동-가해-을 측정하는 11개의 문항, 신체적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 성적 폭력 행동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폭력행동-피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총 4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척도는 폭력의 강도에 따라 경미한 수준과 심각한 수준이라는 2개의 위영

역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최근의 이성교제 중 폭력 관련 연구들(Marshall, 1994; Stets, 1992; Straus & Sweet, 1992)에서 심리적 폭력에 비언어적 메시지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경미한 심리적 폭력의 척도에 '못마땅한 표정짓기', '침묵으로 저항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4) 대처행동

대처행동 척도는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없기 때문에 대처를 Carver, Scheier, 그리고 Weintraub(1989), 정서영과 김명자(1996)의 척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문제에 직면하여 맞서 싸운다', '상담기관을 찾아간다' 등의 적극적 대처와 '문제삼지 않고 지나가거나 회피한다', '그냥 참고 있다' 등의 회피적 대처라는 2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적극적 대처를 측정하는 4개 문항, 회피적 대처를 측정하는 4개 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표 1〉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변인	구분		문항수	척도	응답범위	신뢰도 계수		
						전체	남학생	여학생
개인적 변인	자아존중감		5	5점 리커트	5-25	.82	.76	.86
	성역할 태도		5		5-25	.74	.70	.66
	폭력에 대한 태도		5		5-25	.69	.72	.57
관계적 변인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		6	5점 리커트	6-30	.95	.94	.95
	이성교제 중 폭력 피해반응		6		6-30	.96	.95	.97
	친밀감		3		3-15	.77	.75	.79
	통제		3		3-15	.76	.74	.78
	기능적 의사소통		2		2-10	.69	.67	.70
	역기능적 의사소통		2		2-10	.66	.65	.66
	갈등		7		7-35	.75	.75	.77
이성교제 중 폭력행동	가해	심리적 폭력	11	5점 리커트	11-55	.87	.89	.85
		신체적 폭력	7		7-35	.78	.81	.74
		성적 폭력	4		4-20	.70	.76	.92
	피해	심리적 폭력	11		11-55	.86	.86	.86
		신체적 폭력	7		7-35	.83	.83	.83
		성적 폭력	4		4-20	.78	.74	.81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		4	5점 리커트	4-20	.63	.61	.62
	회피적 대처		4		4-20	.66	.64	.65

기 위해서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 한 Cronbach의 α 계수는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지난 2년 동안(1996년 5월-1998년 5월)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1998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대학-광주지역 5개 대학, 전남지역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616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616부 중에서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남학생 199명, 여학생 225명, 총 424명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의 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GLM,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

1)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의 일반적 경향

먼저 조사대상자의 폭력유형별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표 2>), 전체의 99.1%가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으며, 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각 하위영역에서 경미한 수준의 심리적 폭력경험이 97.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52.4%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으며, 14.6%가 성적 폭력가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8%가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경미한 수준의 심리적 폭력피해 경

험이 95.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43.6%가 신체적 폭력피해를 경험하였으며, 19.8%가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유형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폭력가해 전체점수는 1.53, 폭력피해는 1.43으로 중간 점수인 3점에 미치지 않았으며, 남녀 대학생 모두 자신이 상대방보다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유형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경미한 수준의 심리적 폭력이 폭력 가해와 피해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형태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표 3>), 22개의 폭력형태 중 평균이 중간 점수(3점)를 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으며, 남녀 대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가해와 피해 모두-하는 폭력형태는 '못마땅한 표정짓기(M=2.91)'였다. 그리고, '침묵으로 저항하기', '짜증난 목소리로 화내기' 등 경미한 수준의 심리적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서는 상대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는 행동을, 성적 폭력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조르거나 요구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

<표 4>에서 보면, 적극적 대처행동의 평균 점수는 2.09, 회피적 대처행동의 평균점수는 2.71로 중간 점수(3점)보다 낮았으며, 회피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남녀 대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행동 형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지원을 구하기보다는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은 이성교제 중 폭력 대처행동으로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남학생은 상대방의 폭력행동에 대해 여학생보다 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유형별 경험의 일반적 경향

변인			구분	경험 유·무			평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N(%)	N(%)	N(%)	M(SD)	M(SD)	M(SD)	
폭력 가 해	심리적 폭력	경미한 수준	유경험 무경험	415(97.9) 9(2.1)	193(97.0) 6(3.0)	222(98.7) 3(1.3)	2.23(.79)	2.26(.81)	2.20(.77)	
		심각한 수준	유무	250(59.0) 174(41.0)	129(64.8) 70(35.2)	121(53.8) 104(46.2)	1.43(.61)	1.52(.70)	1.34(.50)	
		전체	유무	420(99.1) 4(0.9)	197(99.0) 2(1.0)	223(99.1) 2(0.9)	1.86(.65)	1.93(.70)	1.81(.61)	
	신체적 폭력	경미한 수준	유무	212(50.0) 212(50.0)	92(46.2) 107(53.8)	120(53.3) 105(46.7)	1.40(.56)	1.40(.59)	1.40(.54)	
		심각한 수준	유무	86(20.3) 338(79.7)	35(17.6) 164(82.4)	51(22.7) 174(77.3)	1.12(.33)	1.13(.38)	1.11(.27)	
		전체	유무	222(52.4) 202(47.6)	100(50.3) 99(49.8)	122(54.2) 103(45.8)	1.24(.65)	1.24(.42)	1.23(.35)	
	성적 폭력	경미한 수준	유무	58(13.7) 366(86.3)	48(24.1) 151(75.9)	10(4.4) 215(95.6)	1.11(.34)	1.20(.42)	1.04(.22)	
		심각한 수준	유무	23(5.4) 401(94.6)	19(9.6) 180(90.4)	4(1.8) 221(98.2)	1.05(.25)	1.08(.31)	1.02(.17)	
		전체	유무	62(14.6) 362(85.4)	51(25.6) 148(74.4)	11(4.9) 214(95.1)	1.08(.27)	1.14(.33)	1.03(.19)	
	전체		유무	420(99.1) 4(0.9)	197(99.0) 2(1.0)	223(99.1) 2(0.9)	1.53(.44)	1.56(.48)	1.48(.39)	
	폭력 피 해	심리적 폭력	경미한 수준	유무	404(95.3) 20(4.7)	193(97.0) 6(3.0)	211(93.8) 14(6.2)	2.00(.72)	2.14(.71)	1.89(.70)
			심각한 수준	유무	213(50.2) 211(49.8)	110(55.3) 89(44.7)	103(45.8) 122(54.2)	1.34(.55)	1.41(.58)	1.28(.51)
전체			유무	191(45.0) 233(55.0)	107(53.8) 92(46.2)	84(37.3) 141(62.7)	1.70(.58)	1.80(.59)	1.61(.56)	
신체적 폭력		경미한 수준	유무	182(42.9) 242(57.1)	106(53.3) 93(46.7)	76(33.8) 149(66.2)	1.32(.52)	1.44(.58)	1.21(.44)	
		심각한 수준	유무	50(11.8) 374(88.2)	28(14.1) 171(85.9)	22(9.8) 203(90.2)	1.09(.39)	1.14(.50)	1.04(.25)	
		전체	유무	185(43.6) 239(56.4)	107(53.8) 92(46.2)	78(34.7) 147(65.3)	1.19(.40)	1.27(.47)	1.12(.31)	
성적 폭력		경미한 수준	유무	76(17.9) 348(82.1)	31(15.6) 168(84.4)	45(20.0) 180(80.0)	1.17(.47)	1.16(.46)	1.17(.47)	
		심각한 수준	유무	34(8.0) 390(92.0)	7(3.5) 192(96.5)	27(12.0) 198(88.0)	1.07(.32)	1.04(.25)	1.10(.37)	
		전체	유무	84(19.8) 340(80.2)	32(16.1) 167(83.9)	52(23.1) 173(76.9)	1.12(.36)	1.10(.32)	1.14(.39)	
전체		유무	406(95.8) 18(4.2)	193(97.0) 6(3.0)	213(94.7) 12(5.3)	1.43(.41)	1.51(.42)	1.37(.40)		

이는 폭력을 당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들(정서영·김명자, 1996; Carey & Mongeau, 1996; Stets & Pirog-Good, 198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표현이나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고, 남학생보다 폭력에 대해 비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표 3〉 이성교제 중 폭력형태의 일반적 경향

변인	폭력 형태	가 해			피 해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M(SD)	M(SD)	M(SD)	M(SD)	M(SD)	M(SD)	
심리적 폭력	경미함	못마땅한 표정짓기	2.91(1.09)	2.87(1.06)	2.94(1.11)	2.67(1.07)	2.85(1.04)	2.51(1.07)
		짜증난 목소리로 화내기	2.66(1.14)	2.56(1.11)	2.75(1.16)	2.41(1.08)	2.56(1.07)	2.27(1.07)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하기	1.50(.94)	1.68(1.05)	1.34(.80)	1.40(.81)	1.52(.91)	1.29(.70)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 치기	1.81(1.02)	1.93(1.02)	1.70(1.02)	1.57(.88)	1.64(.90)	1.52(.87)
		침묵으로 저항하기	2.67(1.20)	2.60(1.23)	2.72(1.17)	2.38(1.17)	2.55(1.15)	2.22(1.17)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기	1.82(1.13)	1.94(1.12)	1.72(1.14)	1.61(.95)	1.71(.94)	1.53(.96)	
	심각함	일부러 술먹고 주정부리기	1.66(1.05)	1.79(1.08)	1.55(1.02)	1.54(.92)	1.64(.98)	1.46(.85)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하기	1.58(.95)	1.66(.96)	1.52(.95)	1.38(.77)	1.47(.81)	1.29(.72)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모욕하기	1.47(.86)	1.52(.89)	1.42(.85)	1.39(.77)	1.42(.73)	1.37(.80)
		상대방의 소유물을 던지거나 부수기	1.19(.59)	1.30(.75)	1.10(.38)	1.17(.55)	1.23(.58)	1.11(.51)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기		1.23(.66)	1.33(.82)	1.13(.46)	1.19(.58)	1.26(.66)	1.14(.50)	
신체적 폭력	경미함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기	1.14(.57)	1.26(.75)	1.04(.30)	1.11(.45)	1.17(.54)	1.05(.35)
		상대방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기	1.57(.89)	1.51(.82)	1.62(.94)	1.52(.86)	1.78(.98)	1.29(.65)
		상대방을 밀치기	1.48(.76)	1.41(.71)	1.54(.80)	1.33(.69)	1.38(.75)	1.29(.63)
	심각함	상대방의 뺨을 때리기	1.12(.41)	1.17(.50)	1.08(.31)	1.12(.49)	1.17(.59)	1.07(.36)
		상대방을 발로 차기	1.18(.50)	1.15(.54)	1.20(.48)	1.12(.49)	1.18(.60)	1.07(.36)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리기	1.08(.39)	1.11(.44)	1.05(.34)	1.07(.40)	1.08(.44)	1.05(.36)
		상대방을 심하게 계속해서 때리기	1.08(.36)	1.08(.38)	1.08(.33)	1.05(.33)	1.10(.46)	1.01(.13)
	경미함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렬히 요구하기	1.18(.49)	1.32(.64)	1.05(.26)	1.26(.66)	1.26(.69)	1.26(.62)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말로 위협하기	1.05(.27)	1.08(.32)	1.02(.20)	1.08(.38)	1.07(.33)	1.08(.42)
		심각함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원력을 사용하기	1.06(.29)	1.11(.39)	1.02(.16)	1.11(.44)	1.05(.28)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협하기	1.03(.25)		1.05(.29)	1.02(.20)	1.04(.29)	1.03(.27)	1.04(.31)	

〈표 4〉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

변인		전체	남	여	
					M(SD)
대처 행동	적극 대처	문제에 직면하여 맞서 싸운다	2.12(1.11)	2.21(1.11)	2.03(1.12)
		상담기관을 찾아간다	1.21(.69)	1.15(.55)	1.25(.79)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도움을 청한다	2.65(1.28)	2.61(1.24)	2.68(1.30)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행동을 중지시킨다	2.45(1.23)	2.15(.99)	2.72(1.36)
		전 체	2.09(.63)	2.03(.58)	2.15(.66)
	회피 대처	문제삼지 않고 지나가거나 회피한다	2.45(1.13)	2.64(1.07)	2.28(1.16)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2.85(1.27)	3.03(1.23)	2.70(1.29)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3.09(1.17)	3.20(1.13)	2.99(1.20)
		그냥 참고 있다	2.42(1.20)	2.68(1.17)	2.19(1.18)
		전 체	2.71(.81)	2.89(.80)	2.55(.79)

것으로 생각된다.

2. 관련 변인에 따른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의 차이

1) 관련 변인에 따른 폭력의 차이

(1) 심리적 폭력의 차이

대학생의 관련 변인에 따른 심리적 폭력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폭력 가해의 경우 개인적 변인에서는 군복무 경험이 없는 남학생 집단,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집단에서 심리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변인에서는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가 부정적인 집단, 이성교제 중 폭력 피해반응이 부정적인 집단,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통제가 심한 집단,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심리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의 경우 개인적 변인에서는 남학생 집단,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집단에서 심리적 폭력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관계적 변인에서는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가 부정적인 집단, 이성교제 중 폭력 피해반응이 부정적인 집단, 친밀감이 낮은 집단,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통제가 심한 집단,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심리적 폭력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성교제 중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심리적 폭력피해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신체적 폭력의 차이

관련 변인 중 신체적 폭력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먼저 개인적 변인에 따른 신체적 폭력가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인 집단, 1학년인 집단, 군복무 경험이 없는 남학생 집단,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집단에서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신체적 폭력행동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Stets & Straus, 1989;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학년, 군복무 경험 등은 연령과 상호관련성이 높은 변인이므로 저학년과 군복무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신체적 폭력사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계적 변인의 경우는 교제동기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인 집단,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가 부정적인 집단,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통제가 심한 집단,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와 갈등 등의 변인에서 신체적 폭력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성교제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Stets(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가 관심과 사랑의 표현보다는 미움, 분노, 슬픔 등의 수단이라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여 신체적 폭력은 대학생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매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변인에 따른 신체적 폭력피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 20세 미만인 집단, 1학년인 집단,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 경험이 없는 집단,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집단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변인의 경우는 폭력 가해동기가 부정적인 집단,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많이 당한다고 보고하였다.

(3) 성적 폭력의 차이

대학생의 관련 변인에 따른 성적 폭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폭력가해의 경우 개인적 변인에서는 남학생 집단,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집단에서 성적 폭력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적 변인에서는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성적 폭력행동이 높게 나타나 이성교제 관계에서 갈등과 성

<표 5> 관련 변인에 따른 심리적 폭력의 차이

변인	구분	N	가해			피해			
			M	SD	D	M	SD	D	
개인적 변인	성별#	남자	199	21.16	7.67		19.74	6.37	
		여자	225	19.87	6.56		17.68	6.07	
		T			1.84		3.37***		
	군복무 경험	있다	93	20.00	6.67		19.22	5.95	
		없다	105	22.26	8.35		20.26	6.72	
		T			-2.11*		-1.14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71	22.03	7.89		20.37	7.84	A
		중간 집단	291	20.07	6.82		18.10	5.61	B
		높은 집단	62	20.63	7.47		19.25	7.07	AB
		F			2.20		3.94*		
성역할 태도	근대적 집단	67	20.36	7.89		18.54	6.75	B	
	중간 집단	293	20.07	6.82		18.25	6.01	B	
	전통적 집단	64	20.63	10.57		20.54	6.80	A	
	F			.26		3.48*			
폭력에 대한 태도	비허용적 집단	69	19.48	7.02	B	17.97	7.16	B	
	중간 집단	299	20.13	6.82	B	18.34	5.76	B	
	허용적 집단	56	23.52	8.15	A	21.23	7.35	A	
	F			6.28**		5.05**			
관계적 변인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	긍정적 집단	26	19.69	5.44	B	17.08	3.58	C
		중간 집단	62	23.45	7.17	B	20.74	6.11	B
		부정적 집단	22	29.28	10.28	A	26.19	11.32	A
		무경험 집단	314	19.33	6.37		17.83	5.58	
		F			9.70***		9.96***		
	이성교제 중 폭력 피해반응	긍정적 집단	19	18.84	5.25	B	16.68	3.40	B
		중간 집단	67	22.67	8.21	AB	20.05	6.43	B
		부정적 집단	22	26.09	9.19	A	25.00	10.99	A
		무경험 집단	316	19.72	6.55		18.03	5.67	
	F			4.19*		6.93**			
	친밀감	낮은 집단	64	21.23	6.50		20.37	6.97	A
		중간 집단	296	20.18	7.15		18.21	6.09	B
		높은 집단	64	21.06	7.59		18.94	6.27	AB
	F			.83		3.14*			
역기능적 의사소통	낮은 집단	65	17.97	5.59	B	15.86	4.46	C	
	중간 집단	308	20.10	6.71	B	18.39	5.58	B	
	높은 집단	51	25.90	8.63	A	23.55	9.02	A	
F			21.05***		24.41***				
통제	약한 집단	90	18.54	6.55	B	17.10	6.79	B	
	중간 집단	248	19.82	6.55	B	18.36	5.68	B	
	심한 집단	86	24.38	7.90	A	21.05	6.84	A	
F			18.74***		9.33***				
갈등	적은 집단	77	17.26	4.89	C	15.38	3.58	C	
	중간 집단	270	19.65	6.22	B	18.00	5.25	B	
	많은 집단	77	26.58	8.44	A	24.07	8.21	A	
F			46.03***		48.73***				

#남자 : 0, 여자 : 1
*p<.05 **p<.01 ***p<.001

〈표 6〉 관련 변인에 따른 신체적 폭력의 차이

변인	구분	N	가해			피해			
			M	SD	D	M	SD	D	
개인적 변인	성별	남자	199	8.69	2.93		8.84	3.18	
		여자	225	8.61	2.42		7.82	2.16	
		T		.30			3.74***		
	연령	20세 미만	110	9.52	3.71	A	8.98	3.72	A
		20세-22세	185	8.55	2.31	B	7.98	2.32	B
		23세-25세	100	7.96	1.21	B	8.24	2.09	AB
		26세 이상	29	8.34	2.96	B	7.96	2.38	B
		F		6.60***			3.26*		
	학년	1학년	132	9.37	3.31	A	8.87	3.72	A
		2학년	106	8.46	2.31	B	7.98	2.32	B
		3학년	82	8.45	2.45	B	8.24	2.09	AB
		4학년	104	8.07	2.00	B	7.96	2.38	B
		F		3.09*			3.09*		
	군복무 경험	있다	93	8.11	2.09		8.32	1.89	
없다		105	9.22	3.43		9.31	3.95		
	T		-2.78**			-2.27*			
모교육 수준	국졸 이하	85	8.47	2.72		8.68	3.78	AB	
	중졸	141	8.94	2.81		8.51	2.49	AB	
	고졸	169	8.46	2.55		7.83	1.66	B	
	대(퇴)졸 이상	21	8.67	2.33		9.19	5.18	A	
	F		.95			3.19*			
폭력에 대한 태도	비허용적 집단	69	7.83	1.33	B	7.93	3.05	B	
	중간 집단	299	8.50	2.30	B	8.14	2.18	B	
	허용적 집단	56	10.45	4.41	A	9.59	4.27	A	
	F		17.81***			7.40***			
관계적 변인	이성교제 동기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198	8.34	2.30	B	8.07	1.81	
		대화상대를 찾기 위해	77	8.73	2.72	AB	8.35	3.42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60	8.75	3.27	AB	8.84	3.71	
		여가를 보내기 위해	36	9.86	3.27	A	8.71	3.80	
		이성에 대해 알고 싶어서	19	9.32	2.54	AB	8.79	2.88	
		F		2.86*			1.20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	긍정적 집단	26	8.35	1.47	B	7.81	1.23	B
		중간 집단	62	9.11	2.58	B	8.52	2.24	B
		부정적 집단	22	11.05	4.06	A	10.71	5.93	A
		무경험 집단	314	8.41	2.55		8.13	2.49	
		F		6.15**			5.45***		
	역기능적 의사소통	낮은 집단	65	8.48	2.62	B	8.14	3.22	B
		중간 집단	308	9.11	2.55	B	8.15	2.18	B
		높은 집단	51	9.67	3.91	A	9.35	4.36	A
	F		4.32*			4.43*			
통제	약한 집단	90	8.24	2.11	B	7.95	2.84	B	
	중간 집단	248	8.49	2.55	B	8.24	2.53	AB	
	심한 집단	86	9.52	3.29	A	8.82	3.11	A	
	F		6.27**			2.31			
갈등	적은 집단	77	7.69	1.08	C	7.41	.99	B	
	중간 집단	270	8.46	2.22	B	7.99	1.62	B	
	많은 집단	77	10.26	4.15	A	10.24	5.10	A	
	F		21.68***			28.12***			

*p<.05 **p<.01 ***p<.001

<표 7> 관련 변인에 따른 성적 폭력의 차이

변인	구분	N	가해			피해			
			M	SD	D	M	SD	D	
개인적 변인	성별	남자	199	4.56	1.31		4.41	1.29	
		여자	225	4.11	.75		4.55	1.55	
		T		4.14***	-.97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71	4.45	.87		4.87	2.39	A
		중간 집단	291	4.26	.87		4.37	1.03	B
		높은 집단	62	4.35	1.18		4.60	1.61	AB
		F	28	3.59*					
	성역할 태도	근대적 집단	67	4.15	.61	B	4.70	1.69	
		중간 집단	293	4.29	1.13	B	4.43	1.44	
		전통적 집단	64	4.66	1.14	A	4.51	1.09	
	F		4.18*			.90			
폭력에 대한 태도	비허용적 집단	69	4.20	.61	B	4.43	1.49		
	중간 집단	299	4.28	.93	B	4.46	1.25		
	허용적 집단	56	4.68	1.90	A	4.64	2.04		
	F		3.77*			.49			
관계적 변인	역기능적 의사소통	낮은 집단	65	4.25	.97	B	4.44	1.07	B
		중간 집단	308	4.28	.92	B	4.37	.99	B
		높은 집단	51	4.65	1.80	A	4.63	3.03	A
		F		2.73			7.45***		
	갈등	적은 집단	77	4.08	.39	B	4.18	.51	B
		중간 집단	270	4.30	1.02	B	4.40	1.08	B
		많은 집단	77	4.62	1.56	A	5.09	2.55	A
	F		5.15**			9.40***			

*p<.05 **p<.01 ***p<.001

적 폭력 사이의 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들 (Christopher et al., 1998; Long et al., 199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많아질수록,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중 하나가 성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성적 폭력피해의 경우 개인적 변인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 성적 폭력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적 변인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과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성적 폭력피해가 높게 보고되었다.

3) 관련 변인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

(1) 적극적 대처행동의 차이

관련 변인에 따른 이성교제 중 폭력에 대한 적극

적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먼저 개인적 변인의 경우 군복무 경험이 없는 남학생 집단과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군복무 경험은 상호연관성이 높은 변인이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수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나타난 MaCrae(1984)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적 변인 중에서 이성교제 중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가 부정적인 집단, 폭력 피해반응이 부정적인 집단, 친밀감이 낮은 집단, 갈등이 중간 이상인 집단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이 낮은 집단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의 친밀함이 폭력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하여 간과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용서해 주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Henton et al, 1983)의 결과와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성교제 중 폭력피해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에서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한다는 결과는 폭력의 책임이 자신이나 외부의 탓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행 연구(Herbert, Silver, & Ellard, 1991)를 지지해 주고 있다.

(2) 회피적 대처행동의 차이

관련 변인에 따른 이성교제 중 폭력에 대한 회피적 대처행동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면 <표 9>에서와 같다. 개인적 변인의 경우 남학생 집단, 본인의 연령이 26세 이상인 집단, 3·4학년 집단, 부연령이 60세 이상인 집단, 부직업이 농·어업과 사무직인 집단,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 부모의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중간 이하인 집단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령은 본인의 연령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본인과 부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미루어,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폭력피해시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내적귀인(internal attribution)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적 변인의 경우는 이성교제 중 폭력 피해반응이 긍정적인 집단, 친밀감이 높은 집단,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갈등이 적은 집단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결과 회피적 대처행동은 관계적 변인보다 개인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폭력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별이나 학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대처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8> 관련 변인에 따른 적극적 대처행동의 차이

변인	구분	N	M	SD	D
군복무 경험	있다	93	7.38	2.15	
	없다	105	8.52	2.45	
T		-3.49***			
아동학대 피해경험	없는 집단	205	7.78	2.66	B
	적은 집단	65	8.68	2.41	A
	중간 집단	104	8.55	2.52	AB
	많은 집단	50	8.86	2.63	A
	F	4.28**			
이성교제중 폭력 가해동기	긍정적 집단	26	7.96	2.07	B
	중간 집단	62	8.92	2.42	AB
	부정적 집단	22	10.05	1.73	A
	무경험 집단	314	7.99	2.67	
	F	5.26**			
이성교제중 폭력 피해반응	긍정적 집단	19	7.16	1.95	B
	중간 집단	67	8.91	2.32	A
	중간 집단	67	8.91	2.32	A
	중간 집단	67	8.91	2.32	A
	무경험 집단	316	8.07	2.67	
F		5.66**			
친밀감	낮은 집단	64	9.03	2.41	A
	중간 집단	296	8.07	2.55	B
	높은 집단	64	8.19	2.95	B
	F	3.63*			
갈등	적은 집단	77	7.36	2.41	B
	중간 집단	270	8.34	2.67	A
	많은 집단	77	8.73	2.45	A
	F	5.99**			

*p<.05 **p<.01 ***p<.001

3.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대처행동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 및 폭력피해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되어진 분석에서 각 대처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식을 구성하였는데, 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별, 군복무 경험,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 인지, 데이트 시간, 데이트 빈도, 역기능적

<표 9> 관련 변인에 따른 회피적 대처행동의 차이

변인	구분	N	M	SD	D
성별	남자	199	11.45	3.21	
	여자	225	10.07	3.14	
	T		4.45***		
연령	20세 미만	110	10.25	3.56	
	20세-22세	185	10.54	3.00	
	23세-25세	100	11.36	3.09	
	26세 이상	29	11.41	3.66	
	F		2.75*		
학년	1학년	132	10.10	3.62	B
	2학년	106	10.60	3.17	AB
	3학년	82	11.07	2.85	A
	4학년	104	11.35	2.97	A
	F		3.38*		
부연령	49세 이하	112	10.13	3.40	B
	50세-59세	262	10.82	3.10	AB
	60세 이상	50	11.50	3.44	A
	F		3.50*		
부직업	기능·기술직	67	10.82	3.11	AB
	농·어업	107	11.28	3.32	A
	사무직	77	11.16	3.00	A
	판매·영업직	85	10.48	3.57	AB
	전문·관리직	61	9.79	2.81	B
	무직	27	9.81	3.28	B
	F		2.80*		
성역할 태도	근대적 집단	67	10.24	3.11	B
	중간 집단	293	10.63	3.21	B
	전통적 집단	64	11.63	3.41	A
	F		3.39*		
부부폭력 목격경험	없는 집단	160	10.36	3.19	AB
	적은 집단	79	11.33	3.16	A
	중간 집단	137	11.04	3.28	A
	많은 집단	48	10.00	3.27	B
	F		3.39*		

*p<.05 **p<.01 ***p<.001

의사소통, 통제, 갈등, 심리적 폭력피해 등의 변인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으며, 회피적 대처의 경우는 성별, 학년, 월평균 소득, 성역할 태도, 1회 평균 데이트 시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통제, 갈등 등의 변인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회귀가정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40이하로 나타났으며, Durbin Waston 계수

(DW) 산출 결과 1.871-1.999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은 <표 10>과 같다. 적극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성별, 심리적 폭력피해,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 경험 유무, 갈등, 역기능적 의사소통,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 인지, 교제 빈도, 통제 등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적극적 대처행동을 11% 설명해 주고 있다.

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해서는 학년과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회피적 대처행동을 7%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변인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보다 영향력이 큰 변인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표 10>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대처행동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독립 종속	변인	B	β
적극적 대처	성별*	1.06	20***
	심리적 폭력 피해	.06	15**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 경험**	.87	14**
	갈등	.07	14**
	역기능적 의사소통	-.16	-11*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 인지	.35	10*
	데이트 빈도	-.24	-10*
	통제	.09	10*
	데이트 시간	-.24	-.07
	(D.W = 1.999)	F	5.41***
	R ²	.11	
회피적 대처	학년	.42	15**
	성별	-.88	-14**
	월평균 소득	-.21	.10
	성역할 태도	.07	-.08
(D.W = 1.871)	F	7.40***	
	R ²	.07	

*p<.05 **p<.01 ***p<.001

가변수 : 남성=0, 여성=1

** 가변수 :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학생=0,

군복무 경험이 없는 남학생=1, 여학생=2

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대처행동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상대방의 폭력행동에 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폭력행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여겨 외부에 알리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기를 기피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이성교제 중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직면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특히 남학생에게 상대방의 폭력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히 조사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거의 과반수가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성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매우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 중 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학교나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이성교제 중 폭력의 높은 발생률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을 사용하는데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러한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회의 폭력 수용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해 점점 허용적이 되어가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각성과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통제, 갈등, 그리고 이성교제 중 폭력 가해동기 등의 관계적 변인들이 이성교제 중 폭력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성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폭력을 예측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기술, 갈등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은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행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여성도 남성만큼 심리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성교제 관계에서 일단 폭력이 수용되면 성별 구분없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이 행하는 폭력만을 강조하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폭력행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처행동에 있어서도 폭력행동과 마찬가지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통제, 갈등 등 관계적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폭력 대처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성교제 중 상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 더욱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간관계 교육, 결혼교육 등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결혼만족도 역시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1) 김경신·김오남·윤상희(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 2) 김광일·문경서(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2, 113-138.
- 3) 김광자·김광일(1984).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pp.247-269). 서울: 탐구당. 이론의 고찰. 가족학 논집, 8, 143-162.
- 4) 김동일(1996). 남녀차이: 사회심리학적 측면. 성의 사회학(pp.73-102). 서울: 문음사.
 - 5) 김예정(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 대학생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 6) 김용미(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7) 송말희(1990). 기혼 남·여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8)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9) 심정택(1993). 가정내 폭력의 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 10) 윤소영(1989). 모-녀간의 성역할 태도 일치도 및 관련 변인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 11)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 12) 정서영·김명자(1996).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217-230.
 - 13) Arias, I., Samios, M., & O'Leary, K. D.(198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during courtship. *J. of Interpersonal Violence*, 2, 82-90.
 - 14) Baumeister, R. F.(1989). The optimal margin of illusion. *J.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176-189.
 - 15) Benokraitis, M. V.(1996). Becoming a couple: Dating, rating, and mating. Family violence and other crisis-related issues. In Benokraitis, M. V.(Ed.), *Marriage and Families*(pp.219-228, 415-448). Prentice-Hall, Inc.
 - 16) Bernard, M. L., & Bernard, J. L.(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283-286.
 - 17) Bernard, J. L., Bernard, S. L., & Bernard, M. L.(1985). Courtship violence and sex-typing. *Family Relations*, 34, 573-578.
 - 18) Bienvenu, M. 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6-31.
 - 19) Bird, G. W., Stith, S. M., & Schladale, J.(1991). Psychological resources, coping strategies, and negotiation styles as discriminators of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0, 45-50.
 - 20) Briere, J., & Runtz, M.(1987). Post-sexual abuse trauma: Data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 of Interpersonal Violence*, 2, 367-379.
 - 21) Carey, C. M., & Mongeau, P. A.(1996). Communication and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hips. In Cahn, D., & Lloyd, S.(Eds.), *Family violence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pp.127-15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22)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23) Cate, R. M., Henton, J. M., Koval, J. E., Christopher, F. S., & Lloyd, S. A.(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 of Family Issues*, 3, 79-90.
 - 24) Christopher, F. S., Madura, M., & Weaver, L.(1998). Premarital sexual aggressors: A multivariate analysis of social, relational, and individual variables. *J.M.F.*, 60, 56-69.
 - 25) Deal, J., & Wampler, K.(1986). Dating violence: The primacy of previous experience. *J.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 457-471.
 - 26) Emery, R. E.(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27) Henton, J. M., Cate, R. M., Koval, J. E., Lloyd, S. A., & Christopher, F. S.(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28) Herbert, T. B., Silver, R. C., & Ellard, J. H.(1991). Coping with an abusive relationship: 1. How and

- why do woman stay? *JMF*, 53, 311-325.
- 29) Joshnson, I. M.(1992). Economic, situation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battered woman, *Families in Society*, 73, 168-176.
- 30) Knutson, J. F., & Mehm, J. G.(1988). Transgenerational patterns of coercion in families and intimate relationships, In G. W. Russell(Ed.),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pp.67-90). New York: PMA.
- 31) Lloyd, S. A., & Emery, B. C.(1994). Physically aggressive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Cahn, D. D.(Eds.), *Conflict in personal relationships*(pp.27-46).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32) Makepeace, J. M.(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33) _____(1983). Life events stres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32, 101-109.
- 34) _____(1986). Gender difference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383-388.
- 35) Marshall, L. L.(). Physical & Psychological Abuse. In William, R.(Eds.), *The dark sid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pp.281-311).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36) Roscoe, B., & Benaske, N.(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Similarities in patterns of abuse, *Family Relations*, 34, 419-424.
- 37)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8) Sternberg, R. J.(1986). A triangle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2), 119-135.
- 39)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MF*, 54, 165-177.
- 40) Stets, J. E., & Henderson, D. A.(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41) Stets, J. E., & Pirog-Good, M. A.(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42) Stets, J. E., & Straus, M. A.(1989). The marriage license as a hitting license: A comparison of assaults in dating, cohabiting and married couples, In M. Pirog-Good & J.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pp.33-52). New York: Praeger.
- 43) Straus, M. A., & Gelles, R. J., Steinments, S. K.(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Doubleday.
- 44)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45) Straus, M. A., & Sweet, S.(1991).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MF*, 54, 346-357.
- 46) Strube, M. J., & Barbour, L. S.(1983). The decision to leave an abusive relationship: Economic dependence and psychological commitment. *JMF*, 45, 785-793.
- 47) Sugarman, D. B., & Hotaling, G. T.(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Pirog-Good, M. A. & Stets, J. E.(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Emerging social issues*(pp.3-12). New York: Praeger.
- 48) Walker, L. E.(1979).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 Low.